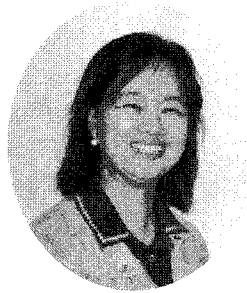


| 해외산업간호정보 |

## 미주 아태지역 간호학회(AAPINA) 소개 - 미국 내 한인 간호연구자를 중심으로 -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Visiting Scholar

### 1. 미주 아태지역 간호학회(AAPINA) 설립배경 및 목적

미국지역에는 많은 동양인 간호사, 간호학생, 간호학자들이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부족한 간호인력 문제로 인해 필리핀, 인도, 한국 등에서 많은 간호학 전공자들이 미국 내로 이주하고 있다. 워낙 많은 수의 간호사가 미국 전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헤아리기는 매우 어려우며, 그들 간의 정보교류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동양인 간호사, 간호학자들이 언어적인 장벽과 문화적인 차이 및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원만한 생활을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서로의 학문분야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나누기 위하여 미국 내에서 연구를 하거나 실무에 종사하는 동양인 간호학자들이 모여 1991년 '미주 아태지역 간호학회(AAPINA: Asian American / Pacific Islander Nurses Association, Inc.)'를 설립하였다. 이 AAPINA 학회는 미국 내 동양인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미주 아태지역 이주자들의 건강에 대한 요구를 찾아내고 이를 도와준다. 둘째, 미주 아태

지역 이주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 정책과 규정을 입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셋째, 다른 보건 분야 및 전문조직과 협력한다. 넷째,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주 아태지역 간호사들의 간호학적 관심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APINA 학회는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aapina.org)를 통해 회원들 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 2. 미국 소수민족연합 간호학회(NCEMNA)와 미주 아태지역 간호학회(AAPINA)

미국 내에는 동양인 간호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이주한 소수민족 간호사들이 대략 35만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적,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간호를 제공하고, 소수민족 간호사 스스로의 전문적인 발전과 정보의 공유를 위해 1998년 '미국 소수민족연합 간호학회(NCEMNA: National Coalition of Ethnic Minority Nurse Associations)'를 설립하였다.

이 NCEMNA 간호학회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6개의 소수민족 학회들을 하나로 연합하여 설립한 학회로서, 아태지역, 라틴계, 인디언계, 흑인, 필리핀, 멕시코지역 간호학회가 분과학회로 구성되어 있다. 분과학회의 이름은 각각 AAPINA(Asian American / Pacific Islander Nurses Association, Inc.), NAHN(National Association of Hispanic Nurses), NANAINA(National Alaska Native American Indian Nurses Association), NBNA(National Black Nurses Association), PNA(American Nurses Association of America, Inc.), SACNAS(Society for

Advancement of Chicanos and Native Americans in Science) 등이다.

NCEMNA 간호학회에서는 6개의 분과학회를 후원하기 위하여 분과학회의 학술대회 지원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석,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간호학생에 대해 동일국가 출신의 미국 내 교수를 멘토로 지정하여 학업과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한국 간호학생들이 미국 내의 한인 간호학 교수와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문화적, 학문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후원을 받고 있다.

## 3. 2008년도 AAPINA 학술대회

제5차 AAPINA 학술대회는 2008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미국 네바다 주에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었다. 2008년 학술대회의 주제는 '실무, 연구, 교육을 통한 아태 지역 이주민들의 건강평등 실현(Achieving Health Parity for Asians and Pacific Islanders through Practice, Research and Education)'이었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네바다대학교의 학장인 Carolyn Yucha 교수의 '소수민족 간호사의 지원전략'에 대한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내용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포스터 논문발표와 멘토-멘티 만남의 시간도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인 간호학자의 참여와 활약이 두드러진 학술대회였다.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대학교(UCS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간호대학에서 산업간호학을 담당하고 있는 홍희생 교수는 다음 임기에 회장직을 수행하도록 차기회장

으로 선출되어 있으며, 워싱턴대학교 간호대학의 김은정 교수는 현재 AAPINA 학회의 총무를 맡고 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간호대학의 박미정 박사는 이번 학회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노스캐롤라이나 주 한인간호사회의 장윤정 회장은 AAPINA 학회 소식지의 공동편집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학회에서 학술발표를 한 한국인 교수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홍외생 교수가 웹기반으로 근로자들의 청력관리를 하고 있는 연구를 소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사업장과 연결이 되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라서 참석자들에게 신선한 관심을 일으켰다. 존스홉킨스대학교 간호대학의 한혜라 교수는 존스홉킨스대학교의 코리안리소스센터에서 이 대학교의 김미영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수행하고 있는 미국 내 한국인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 센터에서는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에서 약 4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로서 미국 내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직장인과 자영업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 또한 워싱턴대학교의 김은정 교수는 미국에 이주한 한국인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여 미주 한국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4. 발전하는 미주 한인 간호

1991년에 설립된 AAPINA 학회는 최근 5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AAPINA 학회의 발전은 미국 내 한인 간호의 진보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학회에 참석하는 한인 간호학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발표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 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한국인 간호학자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

며, 국내 간호계와의 교류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 대학의 한국인 간호학 교수들은 미국의 국립연구소로부터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아 훌륭한 연구 업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의 간호학생들이 이들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유학생활동을 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간호 분야에서는 캘리포니아대학교 간호대학의 홍외생 교수가 산업간호학 전공자들의 멘토를 담당하고 있어, 산업간호 연구자들에게도 보다 발전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멘토링 프로그램은 주로 미국의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에 대한 후원이 대부분이었지만, 향후에는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하는 석사과정 간호학생과 실무 간호사들에 대한 후원도 진행할 계획이어서 미국 유학 또는 미국에서의 간호사 생활을 준비하는 간호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09년도 AAPINA 학술대회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2009년도 학회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태평양간호학회(Pacific Institute of Nursing)'에 이어서 개최하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2008년 10월까지 발표논문의 초록을 접수받고 있으므로, 국내 간호학자들도 이 학회에 참여하여 미국 내 한인 간호학자들과 다양한 교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내의 한국인 간호 학자를 통해 미국 간호계와 한국 간호계가 국제적인 교류를 활발히 진행한다면 우리나라 간호학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간호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AAPINA 학회의 로고〉